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북미 관계 전망 역시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부수적인 축으로써 북미 관계의 진전을 희망하는 우리로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당간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성향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화당 정부에서도 외교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행정부간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 기조가 설령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각론적인 차별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태도 등의 미묘한 차이로부터 현상의 북미간 관계 분위기가 전환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포커스에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역사적 교훈 이라는 주제로,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19세기 중엽의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집에서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를 대주제로 삼았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북미 관계를 조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강국의 對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북 및 외교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단에서는 3 편의 주제를 실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조망한 후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 회복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남북 경협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국내의 보수와 개혁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우리 내부의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트렌드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및 카지노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은 미국 새 행정부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북 · 대외 전략이 다시금 요청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2000년 12월

편집자